

1973년 4월 15일 교회 설립

THE KING'S WAY

# 王道

대한예수교장로회 경향교회보

제2029호 2012년 3월 25일



2012년 표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창세기 13:14)

하나님 중심 · 성경 중심 · 교회 중심



대한예수교장로회  
**경향교회**

GYUNG HYANG PRESBYTERIAN CHURCH

157-030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75 TEL. 02-3663-0333(대표전화) FAX. 02-3663-0336

[www.ghpc.or.kr](http://www.ghpc.or.kr)

교회사무실 ☎ 3663-0333(내선 111~113) 목양실 ☎ 3663-0333(내선 121) 경향선교회 ☎ 3663-4601~2 경향문화사 ☎ 3663-7733 교회서점(만나의 집) ☎ 3661-1991  
경향어린이선교원 ☎ 3663-6567 / 3661-1367 고려신학교 ☎ 031-958-6001(아카데미캠퍼스), 3664-0197(서울) 학교법인 경향학원 법인실 ☎ 3661-3679  
사회복지법인 경향복지재단 ☎ 876-0900(성민종합사회복지관), 875-0960~1(성민장애아동어린이집) 경향지역아동센터(문화교실) ☎ 3664-1516

예수세계화운동 ① 개인구령운동 ② 개척교회운동 ③ 별들의학교운동 ④ 고려신학교운동 ⑤ 세계선교운동 ⑥ 학원복음화운동 ⑦ 기독교복지운동 ⑧ 기독교문화운동  
생활강령 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②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③ 십일조를 온전히 바친다 ④ 설교말씀을 생활에서 체험한다 ⑤ 가정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⑥ 기도와 전도에 힘쓴다 ⑦ 찬미와 감사로 기뻐한다 ⑧ 별들의학교 후원회원이 된다 ⑨ 고려신학교 후원회원이 된다 ⑩ 경향선교회 후원회원이 된다

## 주일낮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 3부 오전 11:00

사회·설교 : 석기현 목사

묵상기도	.....	함	께
* 개회찬송	..... 32장	함	께
* 기 원	.....	사	회
* 신앙고백	..... 사도신경	함	께
찬 송	..... 224장	함	께
목회기도	.....	사	회
성경봉독	..... <b>요한복음 3장 16절</b>	사	회
교회소식	.....	영	상
찬 양	.....	찬	양
1부	..... 피난처 있으니 Thesaurus Musicus	시	온
2부	.....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효영	호	산
3부	..... 성도들의 할렐루야 Robert W. Thygeron	할	렐루야

설 교 ..... **하나님, 독생자, 믿는 자(I)** ..... 설 교 자

새교우환영 ..... 함

헌금기도 ..... 기 도 자

1부 : 장영민 장로 / 2부 : 김동진 장로 / 3부 : 최창식 장로

십일조와 헌금	..... 40장	함	께
* 송 영	..... 82장	함	께
* 축 도	.....	당	회

\* 표는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 건강한 예배를 위해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3부예배 중 유아를 동반한 성도님들은 제9교육실(0-2세), 제3교육실(3세 이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 주일3부예배 중 초등6주일학교(제8교육실)와 유치4주일학교(제1교육실) 예배가 있습니다.
- 주일밤예배에 어린이를 동반한 성도님들은 제2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 주일밤예배(제1·4교육실)와 수요일예배(제1교육실) 중에는 어린이놀이방을 운영합니다.

## 주일밤예배

3월 25일 오후 7:00  
임마누엘청년회 헌신예배

사회 : 제1임마누엘청년회 연합회 회장 윤정석 설교 : 석기신 목사

묵상기도	.....	함	께
찬 송	..... 417장	함	께
기 도	..... 제2임마누엘청년회 연합회 회장 현명도		
성경봉독	..... <b>유다서 1장 21절</b>	사	회
찬 양	..... 임마누엘청년회 연합찬양대		
설 교	..... <b>성령 안에서 기도하라</b>	설	교
십일조와 헌금	..... 55장	함	께
교회소식	.....	영	상
* 송 영	..... 82장	함	께
* 축 도	.....	당	회

\* 표는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 수요일예배

3월 28일 오후 7:30  
제12-14여전도회 헌신예배

사회 : 회장 조규선 권사 설교 : 김동우 목사

묵상기도	.....	함	께
찬 송	..... 249장	함	께
기 도	..... 회장 김양숙 권사		
성경봉독	..... <b>역대하 7장 11~22절</b>	사	회
찬 양	..... 루디아찬양대		
설 교	..... <b>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b>	설	교
십일조와 헌금	..... 399장	함	께
교회소식	.....	영	상
송 영	..... 82장	함	께
축 도	.....	당	회

## 석원태 원로목사 · 석기현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TV '생명의 말씀' 매주 목요일 오후 10:20~10:50 - 강서 디지털 111, 양천 37, 양천 디지털 510, 강남 37, 강동 36, 관악 73, 구로 40, 김포 66, 노원 54, 동대문 48, 동부(중랑) 46, 동작 77, 부천 66, 서초 69, 성북 48, 은평 49, 종로 중구 76, CTS 위성방송(SKY LIFE CH 414)  
▷ 3월 29일(목) - 하나님, 독생자, 믿는 자(I)(요한복음 3:16)
- 극동방송(FM 106.9MHZ) '경향의 강단' 매주일 오후 5:00~5:30  
▷ 3월 25일(주) - 그가 하신 축복(민수기 23:1~26)  
▷ 4월 1일(주) - 하나님, 독생자, 믿는 자(I)(요한복음 3:16)
- 기독교 위성방송(SKY LIFE CH 412) 'TV강단' 매주 목요일 오후 8:40~9:10  
강서 34, 양천 32, 강서 디지털 112, 양천 디지털 512  
▷ 3월 28일(목) - 사도행전 강해(54) 하나님의 선교전략(사도행전 14:26~28)
- 인터넷 방송설교 [www.ghpc.or.kr](http://www.ghpc.or.kr) (경향교회), [www.c3tv.com](http://www.c3tv.com) (C3TV), [www.christiantoday.co.kr](http://www.christiantoday.co.kr) (크리스찬 투데이)
- 우리교회방송 KT메가TV CH888(교회번호 9191)

# 하나님, 독생자, 믿는 자(I)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 : 석기현 목사

미국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중계를 보노라면 가끔 관중석에서 'JOHN 3:16' 즉 '요한복음 3장 16절' 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야구장에서는 홈플레이트 바로 뒤쪽, 미식축구장에서는 골대 바로 뒤쪽에 주로 앉아 있다가, 텔레비전 카메라가 자기 쪽으로 비치는 기미만 있으면 얼른 그 플래카드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안들이고도 그저 자기가 얻게 된 좋은 좌석의 이점, 즉 방송사에서야 좋은 싫든 그 각도로 카메라를 잡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서 것처럼 효과적인 전도의 기회로 삼는 미국의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지혜로운 전도자' 들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전도 플래카드와 관련해서 한 번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느 해 미 프로 야구 월드시리즈 아니면 그 전의 리그 챔피언 결정전 시리즈 중이었는데, 그 경기 중에도 홈플레이트 바로 뒤쪽에 그 유명한 'JOHN 3:16' 의 플래카드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관중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마침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의 각도가 너무나 좋아서 센터필터 쪽 외야석의 텔레비전 카메라가 투수 뒤쪽에서 홈플레이트를 향해 비추어 줄 때 우타자가 나와 있으면 그 'JOHN 3:16' 의 플래카드가 화면의 좌측 상단에 뚜렷하게 돌보이도록 채우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플래카드가 텔레비전 화면에 여러 차례 계속 등장하고 있던 중, 갑자기 해설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저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은 John의 열렬한 팬임에 틀림없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마침 그 순간에 타자로 등장했던 선수의 이름(first name)이 John이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선수의 생애 통산 타율인지 시리즈 타율인지 하는 것이 바로 그 시점에 하

필이면 정확하게도 3할 1푼 6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해설자는 기독교신자가 아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타율을 가리키는 숫자라면 '316' 으로 쓰지 '3:16' 으로 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돌발 상황을 맞이하여 가장 당황한 사람은 바로 곁에 있던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는 그 플래카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 해설자의 무식한 코멘트에 대하여 어떻게 맞장구를 쳐서 적당히 무마해 줄 길이 없었고, 그 결과 생방송 중에 갑자기 한 5초 정도 정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방송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플래카드의 의미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라는 성경 구절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쯤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도 거의 다 아는 것인데도, 그 해설자는 자기 판에는 무언가 예리하게 지적해 낸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몰상식을 전국에 생방송되는 중계석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신구약 66권 전체를 두고 딱 한 절만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바로 이 구절을 꼽을 정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완전히 압축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에게 성경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전도할 때에도 그런 플래카드를 통해서 꼭 알려 주고 싶은 구절이며, 신자 자신도 항상 기억하고 상고하며 그 심령에 늘 되새기게 되는 '성경의 백미(白眉)' 에 해당되는 요절(要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속에 명백히 증거되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 세 가지를 각각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불신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온갖 추측과 억측들만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라는 대전제를 믿는 신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라는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는 기독교신자는 그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그 ‘역사의 종말’ 을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1.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사역’ 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이 세상을」이라고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이 주어가 되고 ‘세상’ 이 목적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께서 ‘주체’ 가 되시고 ‘세상’ 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역사의 ‘대상’ 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은 ‘세상이 하나님을 원했다.’ 라든지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했다.’ 라는 말들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심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오로지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하’ 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제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란 이름, ‘하나님’ 이란 존재는 세상의 사람이 지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서 가장 지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우수한 지식과 논리와 관념을 동원해도 이 ‘하나님’ 이란 말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깊은 대상을 인식하거나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 그야말로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최대한도이며 최고한도에 해당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에 비하여 ‘세상’ 은 어떠한겠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 이란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틀어 가리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세상 사람들’ 을 가리키는 제유법적 표현입니다. 그 ‘사람’ 이란 존재는 우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만물의 영장’ 이라고 자타공인은 하고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돌이

켜 보면 다른 우주만물과 꼭 마찬가지로 오직 ‘지음 받은 존재’ 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 이란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타락’ 의 상태에 빠진 것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악을 행할 줄 아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완벽하고도 좋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것은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돌이켜 볼 때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이라고 이 두 단어가 가까이 붙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실상에 있어서 이 두 존재의 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와 ‘죄인인 피조물’ 이라는 이 까마득히 멀고도 먼 차이점은 원래 사람 쪽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의 간격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전타락’ 은 동시에 ‘전적무능력’ 상태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한 무슨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기는커녕 시도조차 할 수 없으며 사실상 그런 의도 자체부터 자기 마음속에 생기지 아니하는 상태에 빠진 것이며, 여기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sup>10</sup>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sup>11</sup>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sup>12</sup>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써 이처럼 다르고도 먼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소통과 관계라는 것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 순전히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주도권을 행사해 주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논할 때에는 먼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주권'을 그 출발점으로 두지 않는다면 이미 자체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며 결코 성립될 수 없는 헛된 구원론이 될 뿐인 것입니다.

종교란 '신과 인간과의 관계 설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과연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져야 마땅하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저 '지고하고도 거룩하신 절대주권자'와 '유한한 존재이며 타락한 죄인'에 불과한 인간 - 이 사이에서 무슨 관계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에서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오직 '하나님' 쪽 일 뿐입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과 그것을 키우는 '주인'과의 관계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인이 될 사람이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개나 고양이들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드는 놈을 하나 고릅니까, 아니면 개나 고양이들 쪽에서 찾아온 고객들 중에 자기의 주인이 되었으면 싶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집으로 가게 됩니까? 주인이 먼저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랑을 먼저 베풀어 줌으로써 그 개나 고양이도 자기 주인에게 정을 느끼게 됩니까, 아니면 애완동물 쪽에서 먼저 주인을 뜨겁게 사랑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온갖 '예쁜 짓, 착한 짓'을 많이 하는 바람에 주인도 어쩔 수 없이 그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게 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퍼센트 전부가 다 오로지 '주인' 쪽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과 애완동물' 사이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성립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도 대표적인 것은 흔히 생각하고 있듯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 '절대주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들 가운데서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적인 속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원사역, 하

나님의 자비와 공의, 하나님의 대속과 심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등등 하나님에 대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과 원인과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위 종교를 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들 하면서 실상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을 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무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처럼 펄쩍 뛰면서 거부반응부터 즉각 나타내고, 그 대신에 오직 사람 자신의 그 '똑똑한 이성'과 '지식', 그 '고상한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제멋대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이란 이 지고하신 존재를 논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 먹고서, 마치 사람이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존재인양 '사람의 IQ를 가지고 연구해 볼 때 신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논문들을 쓰고, '인간의 구미와 필요에 맞는 종교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마구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종교를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인본주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즉 '인간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만들어 낸 인간 중심의 종교'요 '오로지 사람의 목적을 위하여 신이 수단이 되는 실로 이기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주객전도의 종교입니까?

그런 인본주의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라고 시작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인간이 자기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고행을 하고 득도를 하여'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 시려고'라고 말하는 대신에 '인간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하여 정화수를 떠놓고 삼천 배를 올림으로써'라고 말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결과 인간 자신의 판단에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인간 스스로의 생각에 자기의 요구를 들어 줄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온갖 무생물들과 동식물들을 다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23)는 말씀 그대로가 아니겠습니까?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신앙과 윤리와 법도를 오로지 '인간'에서부터 시작하

‘하나님이 세상을’ -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신앙고백’이며

창조의 신비와 인류의 종말까지 다 깨닫게 해 주는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첫 두 단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사람’을 위하여 이처럼 절대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참된 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참된 구원의 길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본주의적 기독교의 목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이라는 원래 순서를 ‘사람이 신을 추구하여’라고 정반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성경 대신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체험한 후에 고백하고 기록하기를’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짜 성경’ 즉 위경(僞經)을 신구약 66권에 ‘더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인본주의 기독교’는 ‘우상 종교’와 오십보백보의 차이일 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것처럼 ‘인간이 자기 수양을 통해서 차원 높은 도를 닦거나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함으로써 찾게 된 신’이 아니라 오직 철두철미하게 ‘스스로 계신 절대주권자 하나님’에게서만 출발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계시의존사색(啓示依存思索)’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에게 보여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생각하는 방법’ 뿐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메바는 겨우 세포 한 개만을 가지고 그것도 생명이라고 꿈틀거리며 살고 있는 ‘단세포 동물’인데, 사람 쪽에서는 그 아메바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단세포 동물의 신체구조부터 시작해서 그 일생과 생태계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메바 쪽에서는 제아무리 자기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사람을 지각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하나뿐인 아메바에게는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조차 없고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 뇌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아메바는 어찌면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상대방을 인식하고 무언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을지는 몰라

도, 아메바 쪽에서 사람을 볼 때에는 무슨 의사 전달은 커녕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아니 사람이란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자기네 스스로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메바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똑똑하다는 어떤 ‘아메바 천재 박사’라는 것이 나타나서 무슨 연구 논문을 따위를 발표하면서 “사람이란 존재는 이리이러할 것이다.”라든지 혹은 “사람이란 것은 우리 단세포 동물의 이성과 관측과 실험으로써는 그 존재가 증명될 수 없으니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찌고저찌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같잖은,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동물계(界)’에 속한 사람과 아메바 사이에도 그처럼 큰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신’과 ‘인간’이라는 이 두 존재, 전혀 무슨 유사성이나 공통분모 같은 것이 아예 있을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 두 존재 사이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인식할 수 있겠으며 도대체 어떻게 인간 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제 잘난 척 하면서 제멋대로 하나님을 논할 때, 그런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자기네 편에는 만물의 영장인데 어찌고 하면서, ‘신이 어떻게 종교가 어떻게’라고 책상 앞에서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그 얼마나 한심하고도 가소롭겠습니까?

바로 그런 인간 편의 ‘전적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 사람에게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로 계시, 즉 ‘드러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원래 사람의 양심이나 이성이나 지각이나 감각으로는 결코 볼 수도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을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계시의존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오묘하고도 위대한 ‘연역법적인 신앙’입니다. 불신자들은 인간 스스로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적 정보들과 실험적 증거들을 다 모으고 종합정리를 해서 ‘귀납법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신자들은 성경의 증거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닫고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대전제(presupposition), 절대명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을 알고 나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그야말로 연역법적으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불신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냥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있게 되었지는 묻지 말자.’라는 실존주의 철학으로 얼버무리든지 혹은 ‘우주는 대폭발(Big Bang)로 시작되었다.’라는 가설(假說) 하나에 의존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대전제를 믿는 신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온갖 추측과 억측들만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막연한 예언’들은 인구 폭발, 식량난, 핵전쟁, 지구 온난화, 공해, 해성 충돌, 외계인 침공, 우주의 열적 종말 등등 전부가 다 불안하고 절망적인 것들뿐입니다. 하지만 ‘구원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는 기독교신자는 그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역사의 종말’을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체’와 「세상」이라는 ‘객체’를 명백히 구별하여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이처럼 놀랍고도 위대한, 실로 오묘하면서도 너무나 고마운 ‘구원 신앙’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

나님의 절대주권 -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신앙고백’이며 창조의 신비와 인류의 종말까지 다 깨닫게 해 주는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을 믿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종교는 절대로 참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교의 신이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욕구 안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이라고는 하지만 ‘스스로 있는 절대자’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상대적이며 유한적인 존재’에 불과한 신인 것입니다. 것처럼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 ‘사람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우상’을 신이라고 스스로 떠받들고 섬긴다고 하니 이미 시작부터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인본주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즉 철두철미한 ‘신본주의 종교’입니다. 에덴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까지 찾아와’ 주심으로써 ‘죄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 편에서 제아무리 혼자서 허우적대어 보았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쪽으로 손을 내밀어 주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완전 타락’과 ‘전적 무능력’에 빠져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것처럼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첫 두 단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사람’을 위하여 이처럼 절대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참된 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참된 구원의 길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아 멘 -

## 교회소식

### ■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 예배봉사위원 기도회(3부 예배 후)  
장소 : 제1성전
- 교육위원회(3부 예배 후)  
장소 : 교육1국 - 제3교육실  
교육2국 - 제3성전  
교육3국 - 교육관 4층
- 2012년도 상반기  
청·장년 학습·세례·입교 시취문답(오후 1:00)  
장소 : 학습-제3교육실(지하 2층)  
세례·입교-제4교육실(지하 2층)
- 경향청지기 기도회(오후 1:00)  
장소 : 제2성전(지하 1층)  
대상 :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구역장  
참여를 원하는 성도
- 정기당회(오후 2:00)  
장소 : 당회실
- 심방장 사역보고회(오후 4:30)  
장소 : 제2성전(지하 1층)
- 임마누엘청년회 헌신예배(밤)  
설교 : 석기신 목사  
찬양 : 임마누엘청년회 연합찬양대
- 수요일예배(제12-14여전도회 헌신예배)  
일시 : 2012년 3월 28일(수) 오후 7:30  
설교 : 김동우 목사  
찬양 : 루디아찬양대
- 금요일 기도회  
일시 : 2012년 3월 30일(금) 오후 9:00  
장소 : 각 교육실 및 제1성전  
찬양 : 중등1부 교사일동

### ■ 다음 주일 행사

- 낮 : 청·장년 학습·세례·입교식  
남·여전도회 연합회 월례회, 경향청지기 기도회
- 밤 : 여의도·서북·북서울교구 헌신예배  
(찬양 : 여의도·서북·북서울교구 연합찬양대)

### ■ 제30회 사랑의 모임

- 일시 : 2012년 3월 31일(토) 오후 2:00-6:00
- 장소 : 경향교회당 식당(지하 1층)
- 주관 : 임마누엘청년회
- 목적 : ① 성도의 교제  
② 태신자 해산, 장결자 회복  
③ 고려신학교 도서기금 마련

### 예수정사(釘死) 기념예배

- 일시 : 2012년 4월 6일(금) 오후 9:00(예배 중 성찬예식)
- 장소 : 제1, 2성전
- 설교 : 당회장 석기현 목사
- 찬양 : 할렐루야 찬양대
- ※ 예배 중 어린이 놀이방(제1교육실)을 운영합니다.

### 부활주일

- 일시 : 2012년 4월 8일(주)(예배 중 성찬예식)
- 특별헌금예산 : 2억 1천만 원

### 제8회 여성배쟁탈 교구친선농구리그(W리그)

- 일시 : 2012년 3월 25일(주) 오후 3:00  
등촌1-9교구 : 염창교구
- 장소 : 여성체육관
- 주관 : 남전도회연합회
- ▷ 다음경기 - 목동·신월교구 : 방화·공항·발산교구
- ▷ 경기전적 - 여의도·서북·북서울교구 37:27 서서울·김포교구

### 기관별 릴레이 기도

월	화	수	목	금	토						
3.26	제94여전도회	3.27	제95여전도회	3.28	제96여전도회	3.29	제97여전도회	3.30	제98여전도회	3.31	제99여전도회
4.2	제100여전도회	4.3	제101여전도회	4.4	제102여전도회	4.5	제103여전도회	4.6	제104여전도회	4.7	제105여전도회
새벽기도회 중 특송 순서											
월	화	수	목	금	토						
3.26	발산-3	3.27	발산4-5	3.28	발산6-7	3.29	방화-4	3.30	방화5-6,공항	3.31	중등부S.F.C.
<b>고 난 주 간</b>										4.7	고등부S.F.C.
4.2	장로부부	4.3	장립집사	4.4	권사	4.5	심방장	4.6	각 기관 회장		

##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청·장년부 33명, S.F.C. 9명, 주일학교 44명, 총 86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조영순(등촌1, 50여), 이수연(등촌10, 108여), 김효순(등촌11, 4여), 송나래(등촌12, 114여), 손석진(등촌12, 65남), 박평남(등촌14, 1여), 구민성(가양5, 44남), 박형운(가양5, 76여), 김소영(화곡3, 30여), 황숙인(화곡4, 50여), 김덕영(화곡6, 105여), 조범(화곡11, 61남), 고민경(화곡11, 108여), 김현호(염창6, 57남), 이인숙(염창6, 104여), 유송숙(발산5, 10여), 최세진(발산5, 92여), 오경애(남서울, 4여), 김영만(발산2, 61남), 장석영(발산6, 53남), 정정숙(공화, 5여), 김인혜(서북서울, 114여), 정민규(서북서울, 60남), 김희옥(동서울, 40여), 이재균(남서울, 31남), 류주열(북서울, 48남), 최원원(제1임마누엘, 1청), 김기현(제1임마누엘, 5청), 김초희(제1임마누엘, 5청), 김자원(제1임마누엘, 6청), 송용석(제1임마누엘, 8청), 노현영(제2임마누엘, 11청), 손세미(제2임마누엘, 15청), 강봉수(대학부)



4월 예배별 찬양대 순서

주 일	주 일 낮			주 일 밤		수 요 헌 신 예 배			금요기도회		
	1부	2부	3부	예 배	찬 양 대	예 배	찬 양 대	특 송			
첫째주	시 온 찬 양 대	호 산 나 찬 양 대	할 렐 루 야 찬 양 대	여의도·서복·북서울 교구 헌신 예배	여의도·서복·북서울 교구 연합 찬양대	제54-57여전도회 헌신 예배	한 찬 양 대	나 대	할 렐 루 야	대	
둘째주				부 찬 양 예 배	활 화 예 배	호 산 나 대	제56-60남전도회 헌신 예배	권 찬 양 대	사 대	중 등 교 사	2 부 동
셋째주				등 촌 1-9 교 구 헌 신 예 배	등 촌 1-9 교 구 연 합 찬 양 대	제15-17여전도회 헌신 예배	루 찬 양 대	디 대	아 대	중 등 교 사	3 부 동
넷째주				경 향 선 교 회 헌 신 예 배	중 등 부 S, F, C, 찬 양 대	제58-61여전도회 헌신 예배	한 찬 양 대	나 대	고 등 교 사	1 부 동	
다섯째주				여 전 도 회 연 합 회 헌 신 예 배	여 전 도 회 연 합 찬 양 대	제5-9청년회 헌신 예배	권 찬 양 대	사 대	고 등 교 사	2 부 동	

4월 예배봉사위원

	안 내	헌 금
1부		(장) 이임관 이복영 정호선 지경희 이기성 장성신 정호선 박은숙 어윤주 이점에 민금아
2부	(장) 오동환 조규원 이점선 박희연 이옥례 전기순 박순자A 오영자 유금란 김규숙 김은희 박금자 김영숙 김은희 유정덕 김금옥 김학숙 서성업 윤진자 박춘임 단귀덕	(장) 권경록 이소라 권일영 김정화 정보영 주영희 한성희 김경자F 최정자A 심성환 강경순 최수일 홍인화 이재용 서홍석 이상만 오경경 정현욱B 유은숙B 서상원 노인숙 장일동 박병수 문정의 이준호 박미선 황용순 서용상 조영애 강영미 최중묵 문선애 박소영A 김성길 박성근
3부	(장) 홍승태 김영우 임성오 이순자 최정순 유숙현 김삼순 최창욱 이분우 박준일 박영자D 조금자 윤종숙 박정임A 김재선 박미순 조용의 이미숙 박정임B 김재화 한은미 김재희 김미숙S 황정자 성중숙 손정숙 김경희K 지순옥 이정희B 김영애A 연현주 임혜선	(장) 황철호 임임선 원후순 남관희 이미희 최상인 이경순B 고성필 옥채병 김현순 최수만 김대웅 양명종 임성문 유휘종 염혜선 이경선 김연주A 조영우 최관우 이애란 전희원 전창호 문일생 조영숙 이재영 이종욱 지현숙 박영미C 유경자 심정순 정중덕 김순란 김갑자 심정미 이항원 박부임 선효숙 김민숙 이기연 박학자 김인경 이종수 정문자 김인희 박성규A 최규득 임인규

주 차 봉 사 위 원	부 장 위 치 장 모	경북여고(남문)		경북여고(북문)		경향선교원		B1(제1주차장)		B2(제2주차장)		학교운동장		건널목		에비요원	
		2부	3부	2부	3부	2부	3부	2부	3부	2부	3부	2부	3부	2부	3부	2부	3부
				전영수 조희채	윤종덕 박병수												
				오영학 이수만	김낙현 손원태												
				이재규	김명수												
				장정오 이화철	윤현식 석현규 윤경석												
				조영무	옥채병 박덕흥 신태남												
				박대성 조윤행	남성우 김정모												
				김세부 최연호	서용상 박택상												
				이종섭 방길원 박종철 이복영	석기성												



금주주간모임

- 교향초3, 3월 29일(목) 오전 11:00, 제2조(17, 22, 27, 32, 37, 42, 47, 52, 57, 62, 67, 72, 77, 82, 87, 92, 97, 102, 107, 112 여전도회 회원)
- 국장 모임, 오늘 오후 3:00, 목회자료실
- 교회보 '월드' 발송작업 3월 30일(금) 오전 10:30, 경향문화사
- 제1여전도회 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5:00, 한나실
- 임마누엘청년회 중정팀, 오늘 오후 4:00, 제6교육실
- 임마누엘청년회 찬양팀, 오늘 오후 4:00, 교육관 4층
- 임마누엘청년회 앙무팀, 오늘 오후 4:00, 교육관 5층 임마누엘 카페
- 임마누엘청년회 취재팀, 오늘 오후 4:00, 교육관 4층
- 임마누엘청년회 문화팀, 오늘 오후 4:00, 교육관 5층 전극 C.드롬
- 임마누엘청년회 전도팀, 오늘 오후 4:00, 교육관 2층 꽃잎반
- 임마누엘청년회 친교팀, 오늘 오후 4:00, 교육관 2층 풀잎반
- 임마누엘청년회 인터넷팀 모임, 오늘 오후 4:00, 교육관 5층
- 제1청년(75년생 이상), 오늘 오후 3:00, 교육관 5층 청년카페
- 제2청년(76년생), 오늘 오후 3:00, 교육관 1층 무궁화반
- 제3청년(77년-78년생), 오늘 오후 3:00, 교육관 5층 청년회실
- 제4청년(79년생), 오늘 오후 3:00, 교육관 1층 민들레반
- 제5청년(80년생), 오늘 오후 3:00, 교회 지하2층 2교육실
- 제6청년(81년 3-6월, 82년 1-2월생), 오늘 오후 3:00, 교육관 5층 C.드롬
- 제7청년(81년 7-12월생), 오늘 오후 3:00, 교육관 1층 꽃잎반
- 제8청년(82년 3-8월생), 오늘 오후 3:00, 교육관 2층 놀이방
- 제9청년(82년 9월-83년 2월생), 오늘 오후 3:00, 교육관 4층 세미나실

- 제10청년(83년 3-8월생), 오늘 오후 3:00, 경향선교회관 지하층 교육실
- 제11청년(83년 9월-84년 2월생), 오늘 오후 3:00, 교육관 2층 풀잎반
- 제12청년(84년 3-8월생), 오늘 오후 3:00, 경향선교회관 지하층 교육실
- 제13청년(84년 9월-85년 2월생), 오늘 오후 3:00, 교육관 2층 숲속반
- 제14청년(85년 3-12월생), 오늘 오후 3:00, 교육관 4층 세미나실
- 제15청년(86년생), 오늘 오후 3:00, 교육관 2층 새싹반
- 제16청년(87년생), 오늘 오후 3:00, 교육관 1층 진달래반
- 제17청년(88년생 이하), 오늘 오후 3:00, 교육관 2층 향기반
- 중·고·대 연합오케스트라, 오늘 오후 2:00, 경북비즈니스고 시청각실
- 대학부 살롬중창단 모임, 오늘 오후 1:30, 제10교육실
- 대학부 새빛부 모임, 오늘 오후 1:00, 제7교육실
- 대학부 선교부 모임, 오늘 오후 1:00, 전극교및남C사무실
- 대학부 조정 성경공부 및 기도회, 오늘 오후 4:00, 제10교육실
- 대학부 살롬사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6:00, 대학부실
- 대학부 전체 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8:30, 교육관 4층
- 고등부 전체 위원 모임, 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관 5층 세미나실
- 고등부 조별 모임, 오늘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 제10교육실
- 고등부 조정교육, 오늘 오전 12시 30분, 제10교육실
- 고등부 교사 모임, 오늘 고등부 성경공부 후, 제3성전
- 고등부 찬양부 모임, 오늘 오전 11시 30분, 제4교육실
- 고등부 예배예설 중창단 모임, 오늘 오후 3시, 제3교육실
- 고등부 새빛부 모임, 주일 오전 11시, 제10교육실
- 중등부 전체기도회, 오늘 오후 4:00, 교육관 3층

- 중등부 전체 위원 모임, 오늘 오후 1:30, 교육관 3층
- 중등부 피셀중창단 모임, 오늘 오후 12:00, 제6교육실
- 중등부 찬양부 모임, 오늘 오전 11:30, 교육관 3층
- 유년1주교 교사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제4교육실
- 유년2주교 교사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제2교육실
- 유년3주교 교사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교직원식당
- 유년4주교 교사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제3성전
- 유년5주교 교사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제8교육실
- 초등1주교 교사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제2성전
- 초등2주교 교사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제6교육실
- 초등3주교 교사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제7교육실
- 초등4주교 교사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제세미나실
- 초등5주교 교사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제10교육실
- 초등6주교 교사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제5교육실
- 연극 교실, 오늘 오후 1:00, 경북비즈니스고 무용실
- 율동 교실 찬양, 오늘 오후 1:00, 제9교육실
- 찬양 교실, 오늘 오후 1:00, 경북비즈니스고 시청각실
- 오케스트라, 오늘 오후 1:00, 제8교육실
- 공예 교실, 오늘 오후 1:00, 교육관 3층 지역이동센터
- 미술 교실, 오늘 오후 1:00, 제2교육실
- 영어 교실, 오늘 오후 1:00, 제4교육실
- 경향여성중창단 찬양모임, 오늘 오후 2:00, 제세미나실

## 경향선교회 헌신예배

경향선교회 헌신예배가 지난주일 밤 예배 시간에 있었다. 이 현상 목사의 사회, 이성민 장로의 기도, 고등부 S.F.C. 찬양대의 찬양, 당회장 석기현 목사님의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신 4:1-14)라는 제목의 설교와 축도로 진행되었다. 특별순서로는 먼저 고등부 에베셀중창단의 특송과 대학부 살롬중창단의 특송이 있었으며 고등부 S.F.C. 운동원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다. 당회장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성도의 생명 수직인 성경말씀 준행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생존하게 해 주며, 성경말씀 교육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녀의 생명을 지켜 준다고 하시며,

사망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길'과 '진리'가 있으며 그 결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또한 보장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들으며 깨닫고 믿으며 가르치고 전파하는 가운데 구원의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 십자가 구속의 공로에 힘입음으로써, 결단코 죽지 않고 영생에까지 이르는 모든 경향인들이 되기를 권면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미천도 종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가든지 보내든지 더욱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경향인이 될 것을 다짐하며 파송된 선교사와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 사역, 모든 선교사와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 비자허락, 사역의 열매, 풍성한 선교회 재정과 선교회원들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린다.



### 경향선교회 기도제목

- ① 선교회장 원로목사님의 선교회와 교단, 신학교 사역을 위해, 특히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준비와 전파에 성령 충만함과 건강 주시기를 위해,
- ② 졸업식에 참석했던 32명의 선교지 분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도록,
- ③ 출국한 백도현 선교사와 정필우 강도사 가족들의 현지적응과 백수연, 김수아 전도사의 출국 준비를 위해,
- ④ 강광열 선교사의 비자문제 해결과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 ⑤ 특정지역 장로회 신학교 인가 문제가 가장 선하게 속히 이루어지도록,
- ⑥ 우즈베키스탄 미르교회 건물매각과 로스톱나돈누 신학교 교사 마련을 위해,
- ⑦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동아시아, 인도 등 한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선교지 교회와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 ⑧ 개척된 교회들의 정부 등록 및 성장과 건축 중인 교회들을 위해,
- ⑨ 선교지의 21개 신학교에서 수업하는 438명의 학생들과 학사일정을 위해, 그리고 선교사 후보생의 언어의 진보와 선교준비를 위해,
- ⑩ 경향선교회의 풍성한 재정과 모든 선교계획들과 선교회원들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 별들의 학교 후원회 주관, 고려신학교 입학 별님 축하 및 기도회

별들의 학교(김대희 목사, 최성희 전도사 담당) 후원회 주관으로 고려신학교 입학 별님 축하 및 기도회가 지난 3월 18일(주) 오후 5시부터 40여 명의 별들의 학교 후원회 임직원 및 별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향선교회관 로템실 홀에서 있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부회장 송기봉 장로의 사회로 별들의 노래 제창, 별들의 학교 후원회 협력부회장 오동환 장로의 기도가 있는 후, 올해 고려신학교에 입학하는 6명의 별님(아래 참조)을 소개하고 후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축하하였다. 이어서 별들의 학교 후원회장이신 석원태 원로목사님의 신입생 6명 별님과 후원회 임직원과 별님교사들에게 '목사를 하나 키우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이며, 한국에 목사가 있을 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릴 수 없음을 명심할 것과 현재 별들의 학교 후원회에서 별님들이 고려신학교 재학 중 타교회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후원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

로 별님이 신학교 졸업 후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도 필요하다면 자립할 때까지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 후, 신입생 6명 별님이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마음의 확정을 가지도록, 학업에 재미를 붙이도록, 건강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한 후 기도회를 마쳤다. 앞으로도 매년 10명 이상의 별님이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고려신학교 입학별님 소개(이름, 소속, 별서원일, 부모)〉

- 강상헌 별님(고등2부 교사, 2011년 12월 18일)
- 권준호 별님(초등6주교 교사, 2011년 12월 13일, 권요한 · 박경숙 선교사)
- 김민혁 별님(유년5주교 교육전도사, 2004년 1월 10일)
- 이승훈 별님(초등3주교 교사, 2012년 3월 11일)
- 임동현 별님(유년3주교 교육전도사, 2011년 10월 23일, 정검효 장로 · 최수경 권사)
- 최윤원 별님(고등1부 교사, 2012년 3월 18일)



## 당회장 목사님, 발산6-7교구 심방

당회장 석기현 목사님의 발산6-7교구(이택원 전도사, 심경숙 전도사 담당)의 심방이 지난 3월 16일(금)에 있었다. 먼저 오전 11시에 발산7교구의 방길원 집사(김용희 권사) 댁에서 14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당회장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출 27:20-21)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며 구약시대 성소의 등불을

하시며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뛰어 넘어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여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교구 성도들이 될 것을 권면하였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김용희 권사께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 당회장 목사님께서 전희원(김영희V) 집사 댁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심방하셨다. 18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며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예배 후 김영희V 집사와 교구 식구들이 함께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염창1-2교구 새소식반 봉사자 모임

염창1-2교구(김주원 전도사, 김영희 전도사 담당) 새소식반 봉사자 모임이 지난 3월 8일(목) 낮 11시에 가양 홈플러스내 '에슬리'에서 있었다. 2012년 봄학기 새소식반을 개강하며 한 학기 동안 새소식반을 위하여 수고할 20여 명의 봉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김주원 전도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새소식반의 참 능력은 바른 복음 전파에 있음에 강조하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잊지 말 것을 권면하였다. 이어 염창1-2교구 권사들께서 대접하는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 염창5-6교구 새소식반 봉사자 모임

염창5-6교구(김주원 전도사, 박금순 전도사 담당) 새소식반 봉사자 모임이 지난 3월 9일(금) 낮 11시에 염창동 '어바웃 샵브'에서 있었다. 2012년 봄학기 새소식반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 김주원 전도사는 봉사자들이 먼저 복음의 참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으로 어린 영혼과 친구들의 부모님들까지 교회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권면하였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 있는 어려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기도하였다. 이후에는 장정오 집사(장계숙

권사)의 찬조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교제하였다.



### 화곡6교구 어르신들 날들이

화곡6교구(이지완 강도사, 박정희 전도사 담당) 어르신들 날들이가 지난 3월 13일(화), 경기도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은 식당 '청목'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였다. 이날 맛있는 점심을 화곡6교구 김성숙 권사께서 대접하였다. 늘 교구와 교회를 중시하여 기도하는 여중들이 되어 모든 교구 식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를 기도한다.



### 등촌10-11교구 새소식반 봉사자 모임

등촌10-11교구(황병명 목사, 최원에 전도사 담당) 새소식반 봉사자 모임이 지난 3월 14일(수) 오전 11시부터 경향가든에



서 있었다. 이날 새소식반 담당 나기숙 전도사가 새소식반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사항과 숙지사항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교구담당 최원에 전도사의 기도가 있는 후 등촌11교구 김민정 권사의 찬조로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였다. 2012년 1학기 새소식반을 통해서도 새 친구 전도와 부모 전도의 결실이 이루어져 교구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구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 대학부 S.F.C. 새내기학교 수료식

대학부 S.F.C.(김대희 목사, 이민찬 강도사 담당) 12학년 새내기들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새내기학교 수료식이 지난 3월 17일(토) 대학부 모임 중에 있었다. 이이삭 교육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수료식은 12주간의 새내기학교 활동을 담은 영상 시청과 새내기 인터뷰, 대학부 선배 대표가 새내기들에게, 새내기 대표가 선배들에게 쓴 편지 낭독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대학부에서 준비한 수료증과 선물을 전달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새내기학교는 지난 12월 11일(주)부터 3월 4일(주)까지 매주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일(수)의 특강과 대학부 안내, 부서소개, 코이노니아, 음식만들기, 조장들을 통한 기독교 7영리 성경공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행되었다. 금번 새내기학교에는 총 66명의 새내기들이 매주 평균 40명 정도 참석하였다. 새내기들이 열심히 주

님 원하시는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2경향야구리그 개막

2009년부터 4년째를 맞이하는 경향야구리그가 지난 3월 17일(토) 경향학원운동장에서 심판위원장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개막경기를 가짐으로 2012년 리그를 시작하였다. 경향야구리그는 킹스웨이(70년생 이상 남전대회), 인디버스A(71~74년생 남전대회), 인디버스B(75년생 이하 남전대회), 다이나믹스A(제1임마누엘청년회), 다이나믹스B(제2임마누엘청년회), 스위퍼스(살롬대학부) 등 교회 안에 야구를 좋아하는 성도들의 동호회 6개 팀이 매주 토요일 아침 시간에 경기를 함으로 진행된다. 이 야구리그는 팀당 15경기씩 총 45경기를 가지게 되는데 성도 간의 친교의 장으로 선용되고 있다. 희망하는 성도들은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다.



### 2012년 3월 임시 당회 소식

#### 1. 평신도 선교사 파송

대 상 : 박경배 안수집사, 김희중 권사

파송지 : 에티오피아(의료선교)

파송일 : 2012년 4월 22일(경향선교회 헌신예배 중)

#### 2. 장로증원 청원

### 경향어린이선교원 3월 전체 예배

경향어린이선교원 3월 전체 예배가 지난 3월 20일(화) 있었다. 입학하고 처음 하나님께 올러 드린 첫 전체 예배를 통해 선교원 모든 원아들은 먼저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후 위선미 선생의 사회와 원감 이은숙 전도사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요' (딤후 3:15)라는 제목의 설교로 예배를 드렸다. 이제 막 선교원 생활을 시작한 4살 원아들부터 7살 언니 오빠들까지 첫 예배여서인지 의젓하고

차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더 없이 감사하였다. 원아들이 계속 선교원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잘 양육되기를 기도한다.

### 경향어린이선교원 교사 교육

2012학년을 맞이하여 신앙교육과 함께 인성과 감성을 겸비한 글로벌시대의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깊고 넓은 유아교육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월) 교사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아이랩에서 선보인 새로운 교재를 선정하여 교재 사용법을 비롯하여 교재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교육을 받았다. 선교원 교사들이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연구하고 노력하여 더욱 폭넓은 경험으로 2012학년

에도 맡겨진 원아들의 창의력과 진취성을 키워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 경향복지재단 성민장애아동어린이집 전체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 진행

성민장애아동어린이집은 2012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지난 3월 8일(목),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의 올바른 양육지도 방법'이라는 주제로 가정에서의 장애아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제

운 강사의 강의로 장애아동의 부모가 행복해지기 위한 마음가짐 및 장애를 가진 자녀의 양육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아동가정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가족 모두 장애아동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지역특성상 전체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들의 올바른 성장 및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체 학부모가 뜻을 모아 2012학년도 신학기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 교구소식

**발산2교구 이주홍(윤예란)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다.** 축하드리며, 하나님께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시고, 현재보다 천 배나 더하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기를 기도한다.

**신월교구 이은주(박현규) 집사의 부친께서 소천하여**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일정을 마쳤다. 주님의 위로와 부활소망이 모든 유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한다.

### 진우경 집사, 피아노 독주회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는 방화6교구 진우경 집사의 피아노 독주회가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있었다. 이날 연주회에서도 폭 넓은 연주 경험을 통해 다양한 레퍼토리의 연주를 보여줌으로 모든 관객들을 피아노 선율에 흠뻑 젖게 했다. 독주회에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독주회를 축하드리며, 하나님께서 현재보다 천 배나 더하시는 은총과 재능을 더하시므로써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더욱 크게 쓰임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기도한다.



### 변성수(김선향) 집사, '(주).F.C.' 이전감사예배

화곡5교구 변성수(김선향) 집사는 지난 3월 20일(화), 사료수입 기업인 '(주).F.C.'를 강서구 가양동 449-21번지 한화비즈메트로 B동 1206호로 이전하고 당회장 목사님과 교구담당 교역자 및 성도들을 청하여 하나님께 이전감사예배를 올려 드렸다. 당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집안 22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사업에 있어서 근실한 자는 왕 앞에 서게 됨을 전하시며, '(주).F.C.' 기업이 근실한 기업이 되어 늘 주님 앞에서 드릴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길 축복하였다.



게 되기를 기도한다.

### 전영순 성도, 천연 두발염색 전문점 '태후사랑' 개업감사예배

가양9교구 전영순 성도는 강서구 염창동 241-11에 천연 두발염색 전문점 '태후사랑' (☎ 3661-5869, 010-2615-5869)을 개업하고 교구담당 교역자와 교구 성도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개업감사예배를 드렸다. 개업을 축하드리며, 귀한 기업이 현재보다 천 배나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아래 동서남북 사방으로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기업으로 날마다 창대케 되기를 기도한다.



### 김인순 성도, '주연키즈어린이집' 개원감사예배

등촌12교구 김인순 성도는 지난 토요일 오후에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962-11번지에 '주연키즈어린이집' (☎ 02-2693-9394)을



개원하고 교구담당 교역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감사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개원을 축하드리며, 현재보다 천 배나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 동서남북 사방으로 확장해가는 믿음의 기업으로 날마다 창대해지기를 기도한다.



## 경향어린이 새소식반 | 등촌12-13교구 새소식반

등촌12-13교구(황병명 목사, 홍교호 전도사 담당)에는 5개의 새소식반이 운영되고 있다. 교회와 가까이 있어 전도하기에 좋은 이 지역의 교사들은 놀이터와 주중 전도를 통하여 확보된 태신자 해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광이파트 새소식반**은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오랫동안 새소식반을 운영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교사들이 전도에 힘을 쏟고 있다. 놀이터를 중심으로 전도한 결과 아이들과 엄마들의 좋은 반응으로 장격자들과 새친구들이 새소식반을 통해 교회로 연결되었고, 새소식반을 개강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열매를 맺고 있어 감사드린다. 요즘은 아파트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어린이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새소식반이 유일하게 아파트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서 전도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새소식반을 위해 양승욱 집사가 방(101동 103호, 토요일 오전 11시)을 제공하며 최순아 집사가 교사로, 하경자·문현 집사가 협력교사로 수고하고 있다.



**코오롱오투빌아파트 새소식반**은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작년에 등록된 새신자들을 중심으로 새소식반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일대일 심방과 놀이터 전도를 통하여 태신자들을 품고 있으며, 새소식반에만 출석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속히 경향으로 인도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새소식반을 위해 김애연 전도사가 방(코오롱오투빌 2차 1502호, 금요일 오후 4시 30분)을 제공하며 김주희 집사가 교사로, 김혜진 집사가 만들기 교사로, 박희라 집사가 협력교사로 수고하고 있다.

**우성아파트 새소식반**은 유년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적인 방해 세력이 많아 매년 어려움이 있지만, 새소식반 교사들은 기도하며 잘 감당하고 있다. 이 새소식반은 방과 후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 좀 늦은 시간인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하여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사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어 감사드린다. 이 새소식반을 위해 오한나 집사가 방(101동 201호, 목요일 오후 4시 30분)을 제공하며 교사로, 오한나 집사와 김종원 집사, 이수열 집사가 협력교사로 수고하고 있다.



**대동아파트 1차 새소식반**은 주변에 성당이 있고, 이단 종교를 가진 세대수가 많이 있어서 전도하기가 참 힘든 곳이다. 하지만 입주 때부터 계속하여 새소식반이 운영되고 있고, 교사들의 지치지 않는 구령으로 인하여 새소식반을 통해 친구들이 변화되어 교회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때 교사들은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있다. 많은 태신자들이 속히 해산되길 기도한다. 이 새소식반을 위해 문정숙 집사가 방(101동 204호, 수요일 오후 4시 30분)을 제공하며 교사로, 만들기 교사로 최재분 성도가 수고하고 있다.



**한사랑아파트 2차 새소식반**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가 멀다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지속적인 관계 전도를 통해 유년부 친구들이 교회로 연결되어 교사들은 보람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다. 이 새소식반을 위해 심점순 집사가 방(205동 1304호, 토요일 오전 11시)을 제공하며 유명숙 집사가 교사로, 임경아 집사가 협력교사로 수고하고 있다.

새소식반을 통하여 맡겨 주신 영혼들과 아직은 교회로 연결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귀한 새소식반 봉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경향어린이 새소식반 찬양CD(II) 제작

경향어린이 새소식반(이인수 목사, 나기숙 전도사, 강영기 장로 담당)에서는 2012학년도 봄학기 새소식반 공과에 맞춘 찬양CD(II)를 제작하여 지난주일 정교사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번 찬양CD(II)에는 매주 배울 주제곡과 함께 공과별로 총 35곡의 찬양이 수록되어 있으며, 찬양 인도가 어려운 교사들은 CD를 틀어 놓고 인도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번 CD제작을 위해 물질로 후원을 아끼지 아니한 새소식반 부장 강영기 장로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홍순옥 집사, 박은영 사모, 양만호 집사, 최성은 교사, 장기봉 교사, 박태정 집사, 최충수 집사, 성단비 교사, 한가람 교사와 김은승, 전예성, 한찬영, 박은서, 이재은 어린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경향어린이 새소식반 찬양CD(II)는 만나의 집에서 저렴한 가격(1,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 주요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연구보고 총회 결의 목록

(2011년 10월 현재)

올해 가장 적극적으로 이단대책에 나선 교단은 예장 통합(총회장 박위근 목사)이다. 예장 통합측은 2011년 96회 총회에서 2개 언론에 대해 이단옹호언론, 8명의 인물 등에 대해 각각 이단·이단성·이단옹호행각 중단·예의 주시 등의 규정을 내렸다(『교회와 신앙』 www.amennews.com).

이단명 / 교단 / 연도 / 총회 회차 / 규정결의사항

01. **가계저주론(이윤호)**  
합신(2001/86/ 위험한 사상), 통합(2006/91/ 사이버성 농후)
02. **강병국**  
고신(2009/59/ 이단성)
03. **관상기도**  
합동(2011/96/ 교류삼가, 철저배격), 합신(2011/96/ 참여금지)
04. **교회연합신문(강춘오)**  
통합(1995/80/ 이단옹호언론, 2001/86/ 이단옹호언론 해제, 2009/94/ 상습적 이단 옹호 언론), 합신(2010/95/ 이단옹호언론)
05. **교회와이단**  
통합(1995/80/ 이단옹호언론)
06. **구순연 집사**  
통합(2011/96/ 사이버성 농후, 초청강연 엄금)
07. **구원파**  
기성(1985/40/ 이단사이비집단), 고신(1991/41/ 이단), 통합(1992/77/ 이단), 합동(2008/93/ 이단), 합신
08. **기(氣), 마음수련 관련**  
합신(2007/92/ 기훈련 관련 프로그램(뇌호흡, 기체조, 단, 요가, 명상 등)이 '유사종교성' 이 있다며 '참여금지') 통합(2007/92/ '마음수련' 단체에 대해 참여금지)
09. **기독교신문(대표 김종량, 편집국장 최규창)**  
통합(2011/96/ 이단옹호언론)
10. **기독교초교파신문(울넷뉴스, 천지일보)**  
통합(2009/94/ 이단옹호언론), 합신(2010/95/ 이단옹호언론)
11. **기독저널**  
통합(1995/80/ 이단옹호언론)
12. **김기동(서울성락교회)**  
고신(1991/41/ 이단), 합동(1991/76/ 이단), 통합(1992/77/ 이단), 합신, 기성, 기침(1988/ 이단)
13. **김민호(열교회)**  
통합(2006/91/ 교류, 참여금지)
14. **김용두(인천 주님의교회)**  
합신(2009/94/ 비성경적 신비주의적 이단사상), 대신(2009/44/ 참여금지)
15. **김풍일(실로암대중양교회)**  
통합(2009/94/ 이만희와 유사한 이단사상, 회개는 지켜 보아야 함)
16. **나운몽(용문산기도원)**  
통합(1955/40, 1956/41, 1998/83 이단), 고신
17. **다락방 운동(류광수)**  
고신(1995/45, 1997/47/ 이단), 통합(1996/81/ 사이버성), 합동(1996/81/ 이단), 합신(1996/81/ 위험한 사상, 참여금지), 기성(1997/52/ 사이버운동), 기감(1998/23/ 이단), 고려(1995/45/ 유사기독교운동, 사이버 기독교운동), 개혁, 기침
18. **트레스디아스(T.D)**  
고신(1992/42/ 불건전), 통합(1994/80, 2002/87/ 목회자추천반도록), 합동(2006/91/ 엄히경계)
19. **레마선교회(이명범)**  
고신(1992/42/ 불건전한 단체), 통합(1992/77/ 이단), 합신, 기성
20. **말씀보존학회(이승오)**  
합동(1998/83/ 이단), 통합(2002/87/ 반기독교적 주장)
21. **물문교**  
합신, 고신, 기성, 기장
22. **박명호(광규, 한농복구회, 구엘리아복음선교회)**  
통합(1991/76/ 이단), 고신, 합동
23. **박무수(부산제일교회)**  
기성(1999/54/ 이단), 통합(1999/84/ 비성경적, 사이버적)
24. **박윤식(평강제일교회, 구 대성교회)**  
통합(1991/76/ 이단), 합동(1996/81/ 이단 - 2005/90/ 이단 재확인)
25. **박주형(새번영교회)**  
합동(2002/87/ 강단교류금지-지나친 신비주의, 주관적성경해석문제)
26. **박철수(아시아교회, 새생활영성훈련원)**  
합동(2000/85/ 비성경적인 영성사상, 교류금지), 합신(2001/86/ 위험한 신비주의, 참석금지), 통합(2002/87 회/연장연구-2004/89/ 문제삼지 않기로 함-2010/95/ 참석엄히금지)
27. **박태선(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통합(1956/41/ 이단)
28. **밝은빛종말론**  
기성(1988/43/ 사이버성)
29. **밤빌리아추수꾼**  
통합(1990/75/ 이단), 고신, 기성(42회/ 이단)
30. **변승우(큰믿음교회)**  
백석(2009/94/ 제명출교), 고신(2008/58/ 불건전, 2009/59/ 극히 위험한 불건전 사상, 그의 저술 탐독 및 집회참여금지), 통합(2009/94/ 극단적 신비주의 형태 비성경적 이단), 합동(2009/94/ 참여금지), 합신(2009/94/ 심각한 이단성)
31. **빈야드 운동**  
통합(1995/81/ 도입금지), 고신(1996/46/ 참여금지, 2007/57/ 빈야드성 유사운동 집회 참여금지), 합동(1997/82/ 참여자, 동조자는 징계), 기성(1998/53/ 사이버성 있음),
32. **새일파(새일중앙교회)**  
기성, 합동
33. **서달석(서울중앙침례교회)**  
통합(1993/78/ 구원파와 같은 구원관, 집회참석과 그의 간행물 구독금지)
34. **서울명강교회(곽성률, 구 장안교회)**  
통합(2005/90/ 이단사이비적 행위), 한기총(2005/ 이단)
35. **세계복음화신문**  
통합(2009/94/ 이단옹호언론), 합신(2010/95/ 이단옹호언론)

36. **손기철(왕의기도)**  
합동(2011/96/교류삼가, 집회참석금지)
37. **스베덴보리(한국새교회-새예루살렘교)**  
고신(2009/59/ 뚜렷한 이단사상)
38. **시한부 종말론(다미선교회)**  
고신(1991/41/이단), 통합(1991/76/이단), 합신
39. **신사도개혁운동(피터 와그너)**  
고신(2007/57/ 지극히 불건전한 사상, 관련 저술탐독 금지, 강사초빙 금지, 집회참여 금지), 합신(2009/94/ 이단성, 참여금지)
40. **심상용(월드크리스천성경학연구소)**  
한기총(2001/ 반기독교적 인사), 합동(2008/93/ 반기독교 사상 농후, 논리성과 학문성 결여, 엄히 경계, 관련 출판사 및 그의 글 인용 언론도 경계)
41. **아이함(마이클비블)**  
고신(2011/61/ 집회참석금지)
42. **안상홍 증인회(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한기총(2000/ 안식교 계열의 이단, 초교파적 대처), 통합(2002/87 회/이단, 2011/96/ 이단재규정), 합신(2003/88 회/이단), 합동(2008/93/ 이단)
43. **안식교**  
예장총회(1915/4/ 면직제명), 통합(1994/80/이단), 합신, 고신, 기성, 합동
44. **알파코스**  
합신(2009/94/ 참여금지), 통합(2009/94/ 급이빨 사건 등 엄격 배제), 기성(2009/ 복음적이나 가계치유는 경계)
45. **엄명숙(명인교회)**  
통합(2001/86/ 이단)
46. **에클레시아(대표 황규학, 현 로앤처치)**  
통합(2011/96/ 이단옹호언론)
47. **여호와의 증인**  
고신, 기성, 기장, 합신
48. **영생교(조희성)**  
고신, 합신
49. **예수왕권선교회(심재웅)**  
합동(2005/90/ 사이버이단성 농후, 91/ 재확인), 통합(2005/90/ 이단성, 사이버성 농후, 2008/93/ 비성경적 반교회적 이단), 합신(2006/91/ 교류 및 참여금지), 고신(2008/58/ 극단적 신비주의), 대신(2009/44/ 참여금지)
50. **예영수**  
통합(2011/96/ 이단옹호행각 중단)
51. **예장합동혁신총회(산하 남서울신학교)**  
합동(2002/87/ 이단성-연육교리 주장 등
52. **예태해**  
합동(1994/79/ 이단성협의), 기장(1996/81/ 단호 대처), 통합(1999/84/ 예의주시, 2004/89/ 예의주시 철회)
53. **오성삼(한우리교회 전 담임)**  
합신(2009/94/ 지방교회와 이현래와 흡사한 이단성)
54. **유복종(유자현, 녹산교회)**  
합신(2007/92/ 교류 및 참여금지)
55. **윤석전(연세중앙교회)**  
합신(2000/85/ 이단 내지 이단성 짙은 주장, 관계금지)
56. **윤종하**  
합신(2010/95/ 윤씨서적 읽거나 추종금지)
57. **이만희(신천지교회, 시온기독교신학원, 무료성경신학교)**  
통합(1995/80/이단), 합동(1995/80/ 신학적 비판 가치 없는 집단, 2007/92/ 이단 재규정), 기성(1999/54/이단), 고신(2005/55/ 이단), 합신(2003/88/ 이단), 대신(2008/43/ 이단)
58. **이영수(에덴성회)**  
통합(2011/96/ 이단)
59. **이유빈(예수전도협회)**  
합동(1999/84/ 참여금지), 기성(1999/54/ 경계집단), 합신(2000/85/ 참여금지), 통합(2001/86/ 참여금지), 고신(2004/54/ 공개죄자백금지)
60. **이재록(만민중앙교회)**  
한기총(1999/ 극단적인 신비주의 이단), 통합(1999/84/ 이단), 합신(2000/85/ 이단)
61. **이초석(예수중심교회, 구 한국예루살렘교회)**  
고신(1991/41/이단), 통합(1991/76/이단), 기성(1994/49/이단), 합신, 합동
62. **이현래(대구교회)**  
한기총(2005/ 이단)
63. **이흥선(기독평론신문발행인)**  
한기총(2007/ 이단), 합신(2008/93/ 이단)
64. **인터콥(대표 최바울)**  
통합(2011/96/ 예의주시, 참여자제)
65. **장재형(예장합동복음전총회장, 한국 <크리스천투데이> 설립자)**  
통합(2009/94/ 통일교 핵심인물 출신, 재림주 의혹 예의주시), 합신(2009/94/ 이단요소 있어 경계, 교류금지)
66. **전태식(진주초대교회)**  
합동(2005/90/ 집회참석 금지), 고신(2006/56/ 참여금지), 통합(2009/94/ 참여자제)
67. **정명석(JMS)**  
고신(1991/41/이단), 통합(2002/87/ 이단), 합동(2008/93/ 반기독교적 이단), 합신, 기성
68. **조명호(광음교회)**  
통합(2011/96/ 이단성)
69. **조현주(성경100독서관학교)**  
합신(2008/93/ 신천지 이단에 준하는 자)
70. **주일신문**  
통합(1995/80/ 이단옹호언론)
71. **주종철(주안교회)**  
고신(2006/56/ 이단성)
72. **지방교회(윌트니스 리)**  
고신(1991/41/이단), 통합(1991/76/이단), 합신, 합동
73. **최은유(일산 화정복원교회, 평신도능력극대화 세미나)**  
고신(2004/54/ 참여금지), 합신(2005/90/ 이단성), 합동(2007/92/ 참여금지)
74. **크리스천 사이언스**  
기성, 고신, 합동
75. **크리스찬신문**  
한기총(2003/ 이단옹호언론), 합동(2005/90/ 이단 옹호언론), 통합(2005/90/ 이단옹호언론, 2009/94/ 이단옹호언론 해제 이유 없어), 합신(2010/95/ 이단옹호언론)
76. **크리스천투데이(기독일보, 베리타스, 아폴로기아 등)**  
통합(2009/94/ 이단옹호언론), 합신(2010/95/ 이단옹호언론)
77. **통일교(문선명)**  
고신, 통합, 기성, 기장, 합신
78. **하비람(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 장길섭)**  
통합(2008/93/ 교류, 참석, 후원 금지)
79. **할렐루야기도원(김계화)**  
한기총(2000/ 이단사상, 참여엄금), 통합(1993/78/ 비성경적, 비기독교적), 합동(1996/81/ 이단성), 고신
80. **황판금(대북기도원)**  
통합(1993/78/ 사이버집단)

(<개혁교려 중에서>

##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와 위험성

그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흔히 '두발자유화, 체벌금지, 복장자유화' 정도로 알았지만, 지난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들은, '초·중·고교생의 성관계 묵인', '동성애를 학교에서 교육 시키므로 성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며, 동성애자화의 우려',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무너뜨리려는 조계종의 의도', '학생들의 정치사상 교육을 통한 특정 정치세력의 양성 우려',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의 손발을 묶는 교권의 붕괴' 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인권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권력집단으로 만들고, 교육기관을 정치세력화 하려는 독소조항을 가지므로 교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5만 교회와 1천만 성도들은 이를 강력 규탄한다"며 "재의를 통해 반근대주의적 입법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 학교폭력(왕따) 방지 및 조장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들의 감독권의 강화가 필요한데 오히려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다. 즉 교사의 교육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사가 학생지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은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붕괴조례안이 될 수도 있는 근본적 이유이다. 특히 제2장 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분은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만연한 한국 학교 현실에 맞지 않다. 이대로 했다가는 오히려 학교폭력을 은닉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왕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교사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특히 '왕따'란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체를 무시하고, 교만한에 빠져 다른 사람을 하찮게 취급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무시하는 것이며(창1:27; 5:2; 마19:4), 그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신32:15) 행위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간창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견하고도 남음이 있다.

### 동성애 허용·확산 및 성(性)자유화 확산

특히 임신·출산,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제2장 1절)은 윤리의식과 성도덕과 가치관에 관련되는 예민한 사안들이다. 기독교는 성적 순결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런 가치관련 사안들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두 인권문제화하여 차별금지 영역으로 만든 셈이다. 중·고학생들이 임신·출산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동성애 허용 역시 정상적인 성도덕에 맞지 않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성도덕에 맞지 않는 인권교육은 정상적인 성도덕을 추구하는 학부모나 교사, 교육자들에게 역으로 인권유린이 될 것이다. 그만큼 미성년자의 임신·출산이나 동성애 허용에 있어 대다수의 국민들 정

사와 도덕관념에 비윤리적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성애를 인정하고 허용한다거나 임신·출산 차별을 금지한다면 결국 성문란을 조장·확산시키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 종교사학과 종교교육 권리 침해

사립학교는 법인으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니며 건학 이념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종교사학은 그들의 건학 목적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권리를 갖는다. 특히 기독교 종립학교들은 기독교 신앙의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사립학교들이다. 따라서 기독교 종립학교들은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을 전하기 위해 채플과 함께 성경 과목을 가르쳐 왔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제5절 16조는 종교사학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권리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학생의 종교자유와 종교사학의 종교교육의 권리가 충돌할 때는, 학교에서 학생선택권을 주고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어 해결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학생 인권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모든 종교사학의 권리를 제한하고 부정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며 불법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조계종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향후 종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중대 사안이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제5절 17조 '의사 표현의 자유'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배하면서까지 정당정치 활동을 보장해 주려는 의도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내 적극적인 정치활동 그룹인 전교조의 '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요구'와 맞물려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반사회적, 반국가적, 중북적 교육형태로 보는데, 그들의 교육 중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주체사상이나 북한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것은 분명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단체 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은 한국에서의 적실성에 커다란 의문을 던진다. 왜냐하면 2008년 한국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광우병 촛불시위에 학생들이 동원되었고, 2011년 한미 FTA반대시위에서도 학생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제점과 위험성을 내포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라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된 교계에 희소식은 바로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고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은 '학교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수정·통과된 '학생인권조례'는 선언적 의미만 갖게 되는 것이다.



##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김병태 지음 | 브니엘 | 정가 10,000원

기도를 통해 자녀를 축복의 길로 이끄는 방법! 자녀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는 최고의 선물! 우리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도록 안내하는 지침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전하며, 행복자원을 심어주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녀를 거룩한 기도자로 세우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감동을 주는 기도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어린이 어린이 겸손

앤드류 머레이 원저 | 신순덕 지음 | 모퉁이돌 | 정가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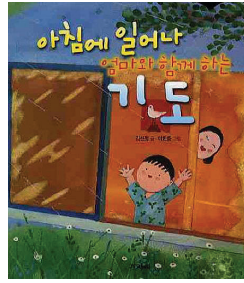


예수님은 겸손하다고 하고, 선생님은 뛰어난다고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꿈을 꾸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꿈꿀 시간을 안 줍니다. 어느 CF의 카피 같은 이것이 『어린이 겸손』을 읽고, 자녀에게 읽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 23:12)고 합니다. 『어린이 겸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로 구성한 책입니다.

## 아침에 일어나 엄마와 함께 하는 기도 잠들기 전 엄마와 함께 하는 기도①②

김선정 지음 | 이한중 그림 | 겨자씨 | 정가 각 4,800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하루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아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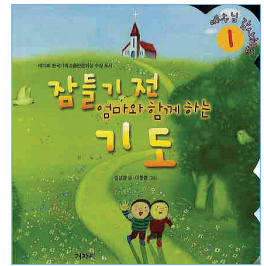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엄마와 함께 하는 기도』는 아이가 아침에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쓴 기도문입니다. 아이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며 잠을 깨워 주세요. 기분 좋게 일어났을 때 아이를 꼭 안고 그날에 맞는 기도문을 읽어 주세요.

밝은 빛으로 아침을 여신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아이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응용하여 그날에 맞는 기도문을 만들어 아이와 함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하루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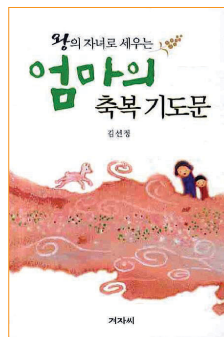
『잠들기 전 엄마와 함께 하는 기도』①②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아이가 쉬운 아이의 말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밤마다 아이와 함께 짧은 기도문 하나를 읽어 보세요. 반복하여 읽다 보면 책 속의 기도가 아이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기도문을 응용하여 아이의 소원에 맞는 여러 가지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어느새 아이는 자신의 소원을 아를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것입니다.



## 왕의 자녀로 세우는 엄마의 축복 기도문

김선정 지음 | 이한중 그림 | 겨자씨 | 정가 8,500원

엄마로 산다는 것은 참 두렵습니다. 자녀는 엄마에게 진정으로 의존하는데,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참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엄마의 축복 기도문』에는 저자가 세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보호할 수도, 소유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자녀의 손을 잡아 하나님께 쥐어 드리는 마음으로 쓴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 뒤에는 성경 속에 있는 축복 말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와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잘 알기 시작했던 저자의 간구와 고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경향교회 임마누엘 청년회 주최



제 30 회

# 사랑의모임

주제 : 선한 손과 선한 일 (느2:18)

일시 : 3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 - 6시

장소 : 경향교회 지하 1층 식당



제30회 사랑의모임